



여성가족부·복권위원회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성남시

시시시 행복해지는 곳

2022년 소식지 서행 6호

사랑한다는 것으로

서정운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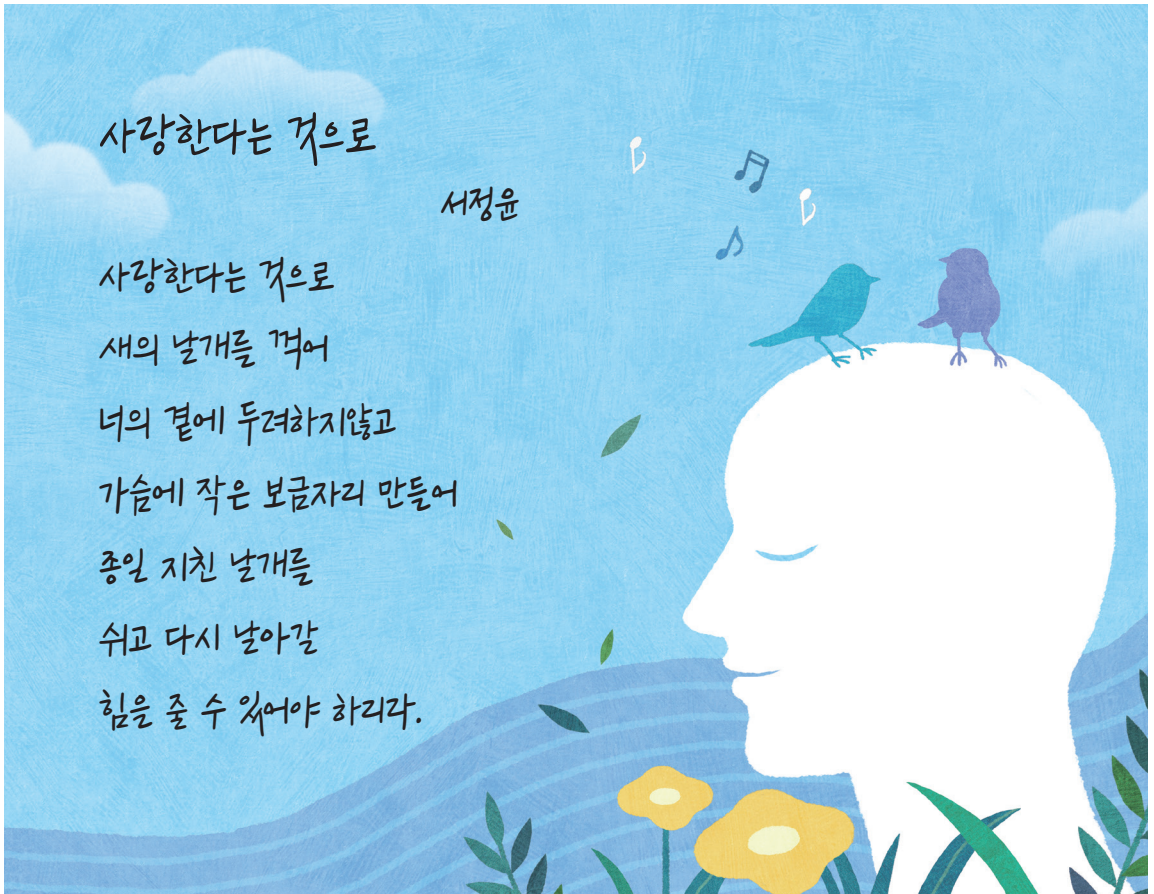
너의 곁에 두려하지않고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목 차

01 가화만사성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면
모든 일이 다 풀려진다.

인사말	3
법인소개	4
쉼터소개(미션, 비전, 직원현황)	5
연혁	6
쉼터운영현황	7

02 화양연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

쉼터모습	9
멘토-멘티 프로그램	10
자립지원 프로그램	11
수련활동	12
교류활동 및 개별 특기활동	13
문화활동 및 개별 문화활동	14
집단 프로그램	15
쉼터동정	16
시티문화재단 '내면치유 프로그램'	17
월드비전 공모사업 '쉼터 청소년 심리지원'	17
성남위례동성당 '도담(도시락을 담다) 프로젝트'	18

03 고진감래

고생 끝에 오는 즐거움

종사자 이야기	20
새로운 꿈	21
희망이 이야기	22
감사합니다.	23
칭찬합니다.	24

04 명심불망

마음에 깊이 새겨
오래 잊지 않음

봉사자 후기 - 최희진 봉사자 선생님	26
실습생 후기 - 김재이 신학생	27

05 유방백세

꽃다운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함

후원금 내역	30
후원물품 내역	31
봉사자 소개	32
후원안내 / 오시는길	

01

가화만사성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면
모든 일이 다 풀어진단다.

- 인사말
- 법인소개
- 쉼터소개(미션, 비전, 직원현황)
- 연혁
- 쉼터운영현황



인사말



저는 매일 아침 안나의 집에 출근하기 전 산하 시설 아이들 집을 먼저 방문합니다.

중장기쉼터에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엔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힘들어했었는데, 요즘 아침마다 열심히 학교 갈 준비, 출근할 준비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보람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가장 먼저 따뜻한 포옹을 하면서 “사랑해, 사랑한다, 언제나 널 사랑해”라고 얘기하면 저 또한 하루의 에너지를 얻어 갑니다.

그 후 담당 선생님을 만나 어제 중장기쉼터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단순히 직업이 아닌 저와 같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느껴져서 늘 감사드리고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 학교생활, 직장 생활을 부지런히 잘하는 밝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아름다운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나의 집 일을 마치고 수도원으로 돌아가 13년 동안 만났던 아이들의 얼굴을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 아이들의 행보를 예수님 손에 맡기고 기도드립니다.

안나의집 대표 김하중

법인소개 '안나의 집'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28 안나의 집
- 설립일 : 1998년 7월
- 설립계기

안나의 집은 IMF이후 노숙인이 급격하게 발생하면서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의식주를 해결해주기 위해 노숙인급식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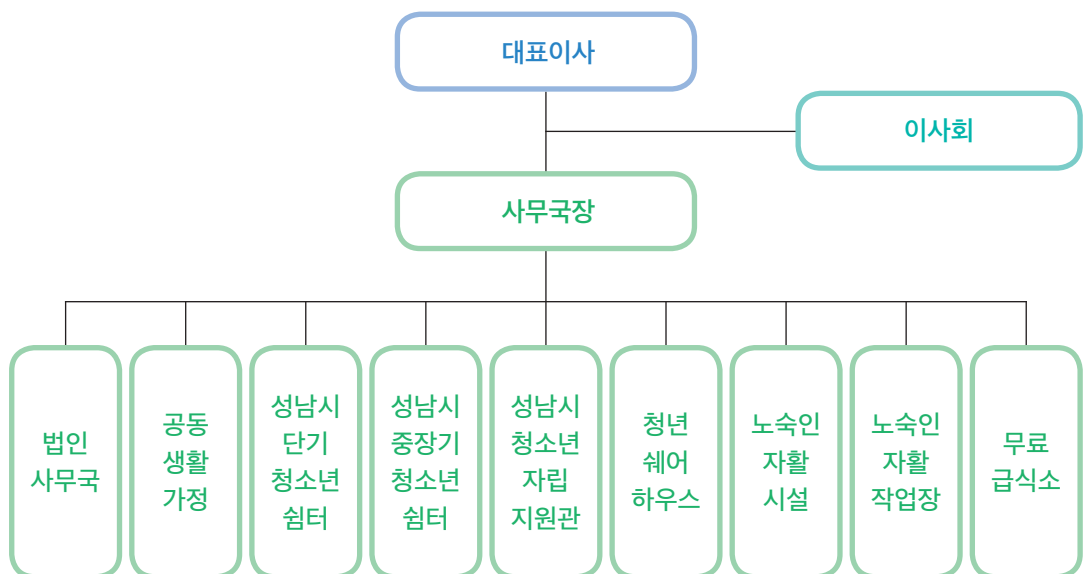
● CI소개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다섯 개의 꽃잎과 그 가운데에 안나의 집을 상징하는 집의 형상이 서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는 안나의 집의 창립이념과 사랑, 봉사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꽃잎에 적용된 차분하고, 고운 초록 색상은 안나의 집에 따뜻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안나의 집' 조직도



쉼터 소개

Mission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양성을 통한 사회공헌

Vision

1. 청소년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쉼터
2.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쉼터
3.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쉼터

중점 목표

1.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보호
2. 학업형 : 학령기에 맞는 학습지원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3. 자립형 : 진로상담을 통한 자립계획 설정 및 자립 기술 훈련
4. 발달단계에 맞는 개별화 서비스 지원
5.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예방 활동
6. 전문성을 갖춘 장기근속 종사자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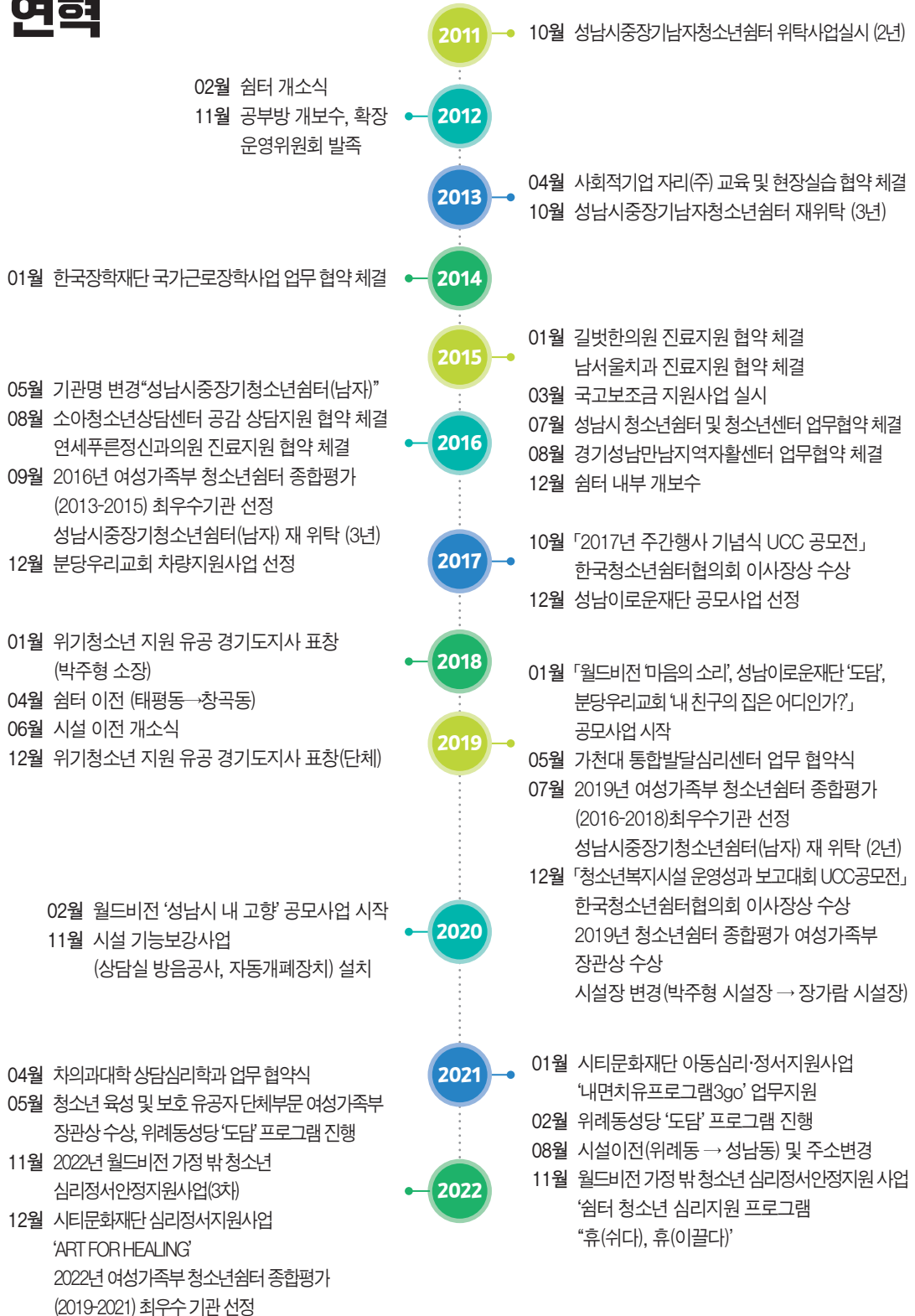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는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있어도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에게 안정된 환경 안에서 학업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개별, 집단상담, 부족한 학습지원, 문화활동, 진로지도,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성이 함양된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직원현황

성명	직책	업무내용
장가람	시설장	사업총괄, 대외협력, 후원자 관리
정재용	팀장	관공서아웃리치, 직업체험, 퇴소생 사후관리
오정빈	보호·상담원	운영위원회, 운영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문화활동
김대현	보호·상담원	시설관리, 멘토-멘티데이, 홈페이지 게시물관리
현미숙	행정원	행정 및 후원관리
방철우	보호·상담원	야간생활지도, 인권교육, 수련활동
조 욱	보호·상담원	야간생활지도, 예절교육, 교류활동
김수환	보호·상담원	야간생활지도, 안전교육, 집단프로그램
이미자	취사원	주간식단 및 식사관리

연혁



2022년 청소년쉼터 운영현황

(단위:명)

사례수

구분	입소생	사용자	합계
진행 사례수(실인원)	11	153	164
신규등록 사례수	1	153	154
연인원 사례수	3,248	258	3,506

입소연령

구분	남				합계
	13세 이하	14~16	17~19	20세 이상	
입소자	0	3	5	3	11
이용자	0	2	32	119	153
합계	0	5	37	122	164

보호기간별 입소청소년 현황

구분	보호기간					소계
	15일 미만	16~30일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입소자	0	0	0	1	10	11
사용자	152	0	1	0	0	153

사후관리

구분	개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서신상담	총 계
합계	81	56	9	0	4	146

퇴소현황

구분	퇴소사유								합계
	가정 및 학교 복귀	아동 시설 의뢰	기타 시설 의뢰	보호 기간 만료	대안 학교 입학	취업 알선	강제 퇴소	사회복지 (자립육구에 의한 합의퇴소)	
합계	0	0	0	0	0	0	0	2	2

상담지원 현황

구분	처리유형				개입방법						합계
	단독	협의	위탁	미분류	개인 상담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심리 검사	서신 상담	지원 서비스	
본인(청소년)	3,168	0	0	0	1,579	145	59	0	6	1,379	3,168
학부모	49	0	0	0	9	38	2	0	0	0	49
부모외 가족	4	0	0	0	0	4	0	0	0	0	4
지도자	148	0	0	0	37	110	1	0	0	0	148
일반인	46	0	0	0	9	36	1	0	0	0	46
기타	22	0	0	0	6	15	1	0	0	0	22
합계	3,437	0	0	0	1,640	348	64	0	6	1,379	3,437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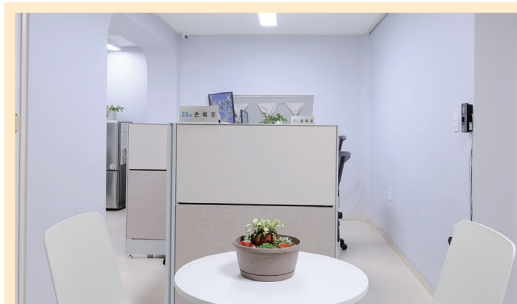
화양연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

- 쉼터모습
- 멘토-멘티프로그램
- 자립지원 프로그램
- 수련활동
- 교류활동 및 개별 특기활동
- 문화활동 및 개별 문화활동
- 집단 프로그램
- 쉼터동정
- 시티문화재단 '내면치유 프로그램'
- 월드비전 공모사업 '쉼터 청소년 심리지원'
- 성남위례동성당 '도담(도시락을 담다) 프로젝트'



쉼터모습



사무실



상담실



거실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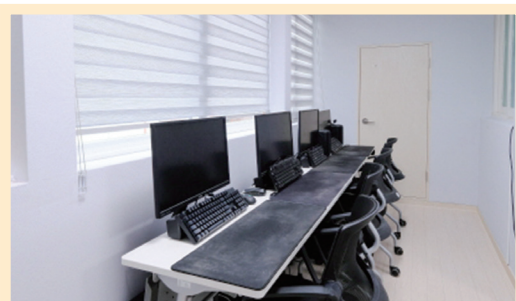
숙소(1인실)



숙소(2인실)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멘토-멘티 프로그램(★특화프로그램)



외부상담: 멘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멘토멘티 여행

멘토와 멘티 둘이서 또는 함께 가고 싶은 친구랑 팀으로 여행을 가는데 아이들이 직접 정해진 예산으로 여행 일정과 하고 싶은 것을 계획하는 특별한 여행입니다.

자립지원 프로그램(드림업&주말요리&직업체험)



드림업 (요리)



드림업 (작가)



경기북부 자립지원두배 통장 신청(입·퇴소생)



경기북부 자립지원두배 통장 신청(입·퇴소생)



주말 요리 (주말 장보기)



주말 요리 (우삼겹 야채찜)



직업체험 (제빵사 체험)



직업체험 (플로리스트 체험)

수련활동



춘계소풍_ 강원도 횡성(숲체원, 루지체험)



하계소풍_ 강원도 양양 (카누체험, 수륙양용체험)



추계소풍_ 경기도 양평(용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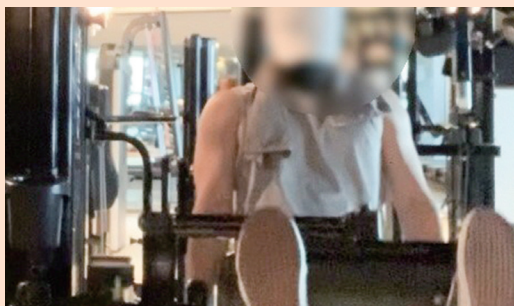


동계 캠프_ 경기도 부천 (웅진플레이도시, 서핑체험)

교류활동(개별 및 집단)



교류활동(집단) - '산넘어 산' 산악등반, 볼링, 풋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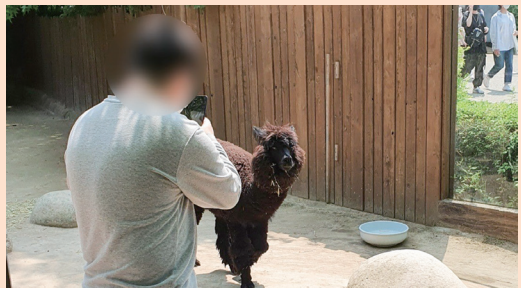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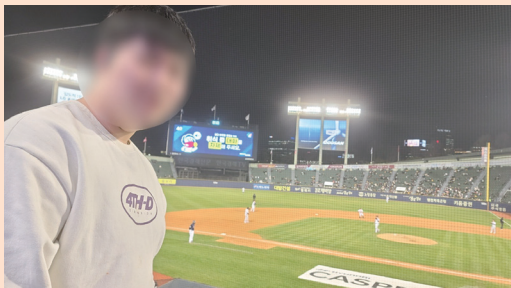


개별특기 활동 지원 - 1:1 PT, 플랩풋볼, 농구 및 야구학원 지원

문화활동(개별 및 집단)



문화활동(집단) - 북카페, 포물라E 관람, 아쿠아리움, 뮤지컬 관람



개별문화 활동 지원 - 야구관람, 에버랜드, 영화음악콘서트 관람, 태양의 서커스 관람
(주)비피에스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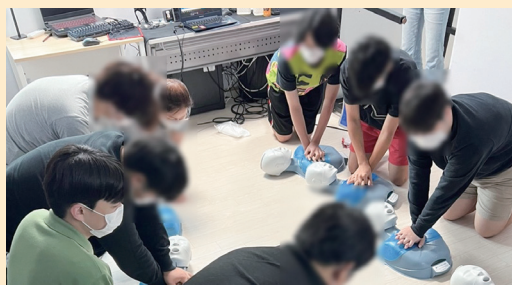
집단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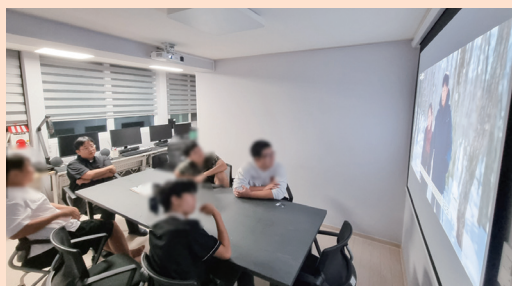
만들기 프로그램(테라리움 만들기, 냄비받침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보건교육, 자살예방교육)



체험 프로그램(경찰서 견학, 심폐소생술)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연극치료, 영화집단상담)

쉼터동정



자가격리 자체 방역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촬영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차의과대학 협약식



입·퇴소생 간담회



직원 리프레쉬



시티문화재단 심리·정서사업 지원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3회 수상

시티문화재단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원 사업 “Art For Healing” “내면치유 프로그램 쓰리GO”

- 공모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2. 01. 15. ~ 2022. 12. 31.
(11개월)
- 참여인원: 20명
- 지원금액: 10,000,000원
- 활동내용
 - 종합심리검사 실시
 - 개인 정서·심리치료
 - 집단상담프로그램(연극치료)



월드비전 공모사업

월드비전 가정 밖 청소년 심리정서안정지원 프로그램 심리지원 프로그램 “심(心)청(聽)이(釐) 마음을 듣고 고치다”

- 공모사업: 월드비전 가정 밖 청소년 심리정서안정지원사업(3차)
- 사업기간: 2022. 11. 1. ~ 12. 31.
- 참여인원: 5명
- 지원금액: 1,450,000원
- 활동내용
 - 입소생 종합심리검사
 - 입소생 해석상담비
 - 기존 입소생 개인상담비
 - 종사자 수퍼비전



청소년쉼터 퇴소생들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담(도시락을 담다) 프로젝트”

- 공모사업: 위례동성당 배분사업
- 사업기간: 2022.1.1. ~ 12. 30. (11개월)
- 참여인원: 109명 (실인원: 13명)
- 지원금액: 5,000,000원
- 활동내용
 - 중장기쉼터“도담” 개별특방 채팅 및 희망 메뉴 접수
 - 월 2회 퇴소생 집 방문(주부식 및 기타식품 전달)
 - 근황 확인 및 생일 축하



도시락 준비(위례동성당)



도시락 준비(실무자, 퇴소생)



위례동성당 도시락지원



도시락 전달 및 사례관리

03

고진감래

고생 끝에 오는
즐거움

- 종사자 이야기 - 김수환
- 새로운 꿈(입소생)
- 입소생 이야기
- 감사합니다.
- 칭찬합니다.

‘용서라는 경험, 그리고 변화와 성장’

야간 보호·상담원 김수환

세무회계학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무언가에 홀린 듯 상담이라는 학문에 관심이 생겨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면서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정답은 바로 제가 겪었던 힘들었던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제는 벌써 우리 아이들을 만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되어 갑니다.



기대를 품고 아이들을 처음 만났던 장면과 감정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사랑만 받고 성장해도 부족한 시기에 가정에서 폭언 및 방임을 비롯한 학대를 경험하고 결국에는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도 아프고 과연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생겼었습니다.

그래도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천천히 다가가자 결심하며 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학대의 경험으로 거짓말, 품행, 충동조절 등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아이들의 상처를 모두 보듬어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며 함께 일하는 동료 선생님들과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용서’라는 경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하여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경험이 느리지만 서서히 아이들 가슴속에 스며들었고 점차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과정이 마냥 순탄하기만 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에 상처도 받고,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가도 막상 돌아오는 것은 제가 기대했던 것에 비하여 한참 모자라니 지치기도 하며 어느 순간에는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들의 사랑을 무럭무럭 받아 아이들이 밝아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의구심이 아이들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경험은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제가 쉼터에서 종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힘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성남시 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먼 훗날 이 시간을 돌이켰을 때 많은 사랑을 받고 행복했던 시기로 기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이들의 사랑의 메시지 💬

00영

안녕하세요 저는 중장기 쉼터에 입소한 지 1년째 되어가고 있는 00영이라고 합니다.

중장기 쉼터에 처음 입소했을 당시에는 그냥 빨리 나가서 돈 벌 생각만 했고 진로나 미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선생님이 그런 저에게 대학이라는 기회를 주셨고 덕분에 꿈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꿈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중입니다.

처음 입소했을 때 아무 계획 없이 돈만 벌려고 했고 성격 자체도 엄청 내성적이라 남들과 친해지는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선생님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잘 지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과연 현재 지내고 있는 쉼터가 아닌 다른 쉼터였었다면 지금과 같이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거나 지쳐 보일 때 또는 고민이 많아 보일 때면 항상 선생님께서는 힘들면 다 말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 말이 정말 큰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제 꿈을 찾기위해 체대 입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부족하고 한치 앞도 모르겠지만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그분들과 함께 저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0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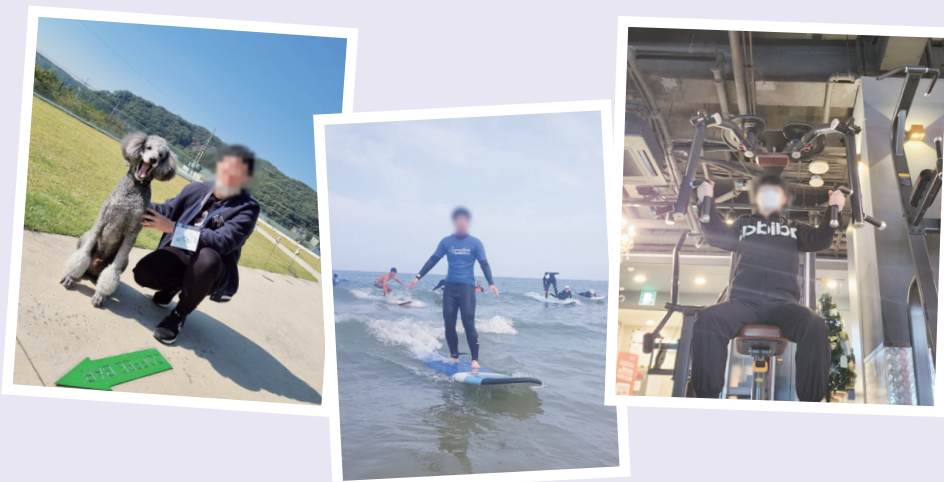
저는 22년도 9월에 군 복무를 마치고 무사히 전역을 했습니다. 누구나 전역을 하고 난 뒤면 친구들을 만나서 놀거나 자신이 군대에 있으면서 즐기지 못한 것들을 하고자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를 놀러 다니거나 친구들을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군 복무를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왔고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총 4번 정도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고 최소 두 달 정도는 통원 치료를 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전역 이후로 편안하게 쉴 수는 없었지만 병을 크게 키워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 지금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치료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허리 근육을 늘려야 된다고 하여 헬스장도 등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치료비와 헬스장 비용을 심터에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는 비용에 부담을 갖지 않고 허리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도수 치료를 받을 때는 허리가 쿡쿡 쑤시는 고통을 참으면서 치료를 받았고 헬스장에서는 최대한 무리가 안 가게끔 신경 쓰면서 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치료와 운동을 병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 선생님께서는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원래 생각했던 것 보다 빠르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헬스를 꾸준히 한 덕분에 허리 근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균형도 건강하게 맞춰진 덕분에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1년간 감사했던 일 모음)

- # 크리스마스선물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 # 요리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 제주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김앤장 독서 멘토링을 무사히 마무리해서 감사합니다.
- # 영어 특강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 야구 훈련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 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 부모님 만나 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 모든 사랑을 발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 군 생활을 무사히 보내고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 자립두배통장 개설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피복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고생하신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 # 도넛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선물을 주신 후원자님께 감사합니다.
- # 이미용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 안나의집 봉사를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 # 대학 정시 비용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학교를 다시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 제야의 종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 #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2022년도를 별 탈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 학원 특강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코딩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 기타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케이크를 함께 먹을 수 있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피자과 치킨을 후원해 주신 덕분에 다같이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 #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 # 아플 때 병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1년간 가족회의 시간에 나누었던 칭찬 메시지 모음)

제가 힘들 때 곁에서 말도 해주고 비타민도 챙겨 준 OO을 칭찬합니다.

내가 힘들 때 도와준 OO을 칭찬합니다.

항상 재미있게 해주고 잘 대해준 OO형을 칭찬합니다.

잘 놀아주고 재미있게 해준 OO형을 칭찬합니다.

청소 방법을 잘 몰랐는데 친절하게 알려준 OO을 칭찬합니다.

울릉도 여행 기념품을 사준 OO을 칭찬합니다.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준 OO을 칭찬합니다.

등산할 때 먼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중간에서 기다려준 OO을 칭찬합니다.

학원 하원 중 음료를 사준 OO을 칭찬합니다.

늦잠을 잤는데 저를 깨워 준 OO을 칭찬합니다.

자신의 할 일을 끝까지 한 OO을 칭찬합니다.

자신의 할 일을 잘하고 성실하게 하는 OO을 칭찬합니다.

봉사를 적극적으로 한 OO을 칭찬합니다.

운동을 가르쳐 준 OO형을 칭찬합니다.

제가 아플 때 대신 나서서 정리를 도와준 OO을 칭찬합니다.

짐을 옮길 때 옆에서 묵묵히 도와준 OO형을 칭찬합니다.

프로그램에 잘 참여한 OO을 칭찬합니다.

곁에서 잘 챙겨준 OO을 칭찬합니다.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 OO을 칭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 OO형을 칭찬합니다.

같이 영화를 감상해준 OO을 칭찬합니다.

봉사를 같이 가준 OO을 칭찬합니다.

아파서 누워있을 때 대신 빨래를 개주고 정리해준 OO을 칭찬합니다.

나를 많이 배려해 주는 OO형을 칭찬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청소를 한 OO을 칭찬합니다.

맛있는 간식을 사준 OO형을 칭찬합니다.



04

명심불망

마음에 깊이 새겨
오래 잊지 않음

- 봉사자 후기 - 최희진
- 실습생 후기 - 김재이 신학생

최희진 봉사자 선생님

저는 봉사의 기쁨과 보람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또한 봉사가 결코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며 나 자신에게 매우 귀한 활동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쉼터의 학습 봉사를 제안받았을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또래보다 뒤쳐진 부분들을 채워가며 영어를 가르치는 동안 아이는 잘 따라와 주었고 일주일에 두 번씩 쉼터를 다니면서 즐겁기만 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수업을 하기도 했고 가끔 아이가 말을 안 듣는 날도 있었지만 그런 변수조차 즐겁고 흥미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 멘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성장의 불균형은 학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관계에, 표현에, 삶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는 병원에 입원을 했고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지 하루에 10분 정도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멘토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10분이라는 시간은 아이의 말을 들어주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을 아끼고 들어주는 데 집중하며 공감과 지지와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어서 안타까웠지만 병원 치료를 받으며 아이 스스로 변화하였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을 전화만 하다가 다시 수업을 하게 된 기쁨은 말로 표현 못 할 만큼 컸습니다. 한창 성장기인 아이는 그사이 소년에서 청년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년에서 청년.... 그 과정이 한마디로 사춘기입니다. 그렇게 아이는 사춘기의 한복판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수업 시간에는 공부보다는 대화가 많았습니다.

얼굴 보고 함께하는 반가운 시간이었지만 무언가 늘 불안함을 느꼈고 해결되지 않는 불안은 아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질풍노도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는 다시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하루 한 통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수업을 갈 때마다, 그리고 병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쉼터의 종사자님들의 노고를 늘 느꼈습니다. 아이마다 다른 사연, 다른 특성, 다른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세심하게 고민하시고 배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적절한 보호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믿고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매일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이는 이 모든 분들의 응원으로 자기 자신을 찾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저는 봉사의 기쁨, 보람과 함께 어려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마저도 나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어두운 시간을 함께 가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봉사입니다. 지금은 불안하지만 좋은 사람, 좋은 어른이 되는 방법을 깨달을 때까지 저는 멘토로, 선생님이로 늘 아이 옆을 지키고 싶습니다.

중장기 쉼터에서의 실습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가톨릭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재이 신학생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1년 동안 사목 실습을 하는 중에 이곳 안나의집에서 4개월 동안 실습을 하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오기로 마음먹었을 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설렘과 동시에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오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안나의집에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김하중 신부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 덕분에 그러한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 청소년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신부님께서 중장기 쉼터에서 실습을 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중장기 쉼터에서의 저의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실습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이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야겠다. 그리고 더불어 내가 이 기관에 최소한 폐는 끼치지 않아야겠다.” 쉼터라는 것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이는 없었지만,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각자마다 어떠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이유로 여기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물론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다가와 주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낯을 가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과 친해지고 대화하면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환경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 매우 슬펐고, 때때로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그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용서받고자 하길 원했고, 이러한 실수를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는, 그 안에서 오는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성장은 비단 아이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언제나 뒤에서 함께 동반해주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언제나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잘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 항상 노력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과정 안에서 때때로 아이들과 갈등이 있게 되면 그 누구보다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이들도 이러한 선생님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로 인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선생님들께서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저 역시도 이러한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대전가톨릭대학교
학부생 김재이 신학생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곳에 처음 오면서 다짐했던 것은 내가 이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사람, 이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습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저는 여기 있는 아이들과 선생님들께 오히려 많은 도움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저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아이들과 같은 시선으로 살아가니 아이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아이들과 발맞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 학년이 점점 올라가고 많은 것을 배우면서 머리로는 하느님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지만,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방식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에서 지낸 4개월은 저에게 가장 부족한 점들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인 동시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의 시간이 언제나 평화롭지는 않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오는 아픔들을 느껴야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각자의 아픔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뒤에는 항상 이 아이들을 응원하고 아이들을 위해 힘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들었던 이곳을 떠나 원래의 제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아쉽고 슬프지만, 이러한 감정이 느껴진다는 것은 제가 이곳에서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짧지만 이곳에서의 시간이 소중했고, 부족한 저에게 행복한 기억,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 이곳을 떠나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함께할 것이고, 늘 기도 안에서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나의 집에 계시는 모든 분들, 또 이곳을 위해 후원해 주시고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5

유방백세

꽃다운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함

- 후원금 내역
- 후원물품 내역
- 봉사자 소개
- 후원안내 / 오시는길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



후원자

강미선님, 강승진님, 김원빈님, 김윤자님, 김용정님, 김질임님, 권후자님
김유자님, 남경준님, 박순배님, 박은영님, 신세은님, 송인령님, 이가영님
이한욱님, 이*진님, 이용희님, 이소영님, 유정영님, 유원일님, 엄은자님
엄아네스님, 안세라님, 이혜숙님, 윤영호님, 조영선님, 전정자님, 전순석님
최희진님, 한문정님, 홍정희님



후원단체

강남베드로병원, 김·장 법률사무소, 경기도 복지정책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성남지역협의회 수정지구, 사회복지법인기아대책, 서울모금
회, 성남시 교육청소년과, 죽전동성당





물품을 후원해 주신 분들



후원자

김경언님, 김수영님, 김지은님, 김호정님, 남경준님, 노국님, 박은영님, 박지현님, 박혜연님, 박호순님, 방철우님, 변일수님, 신수경님, 신세은님, 손석훈님, 이용준님, 이가진님, 이용준님, 임다숨님, 유경숙님, 전순석님, 정해미님, 최지민님, 최희진님, 하경희님, 한윤옥님, 홍장원님, 황혜진님



후원단체

김·장 법률사무소, 굿네이버스, 돈까스짬 상대원점, 대자연사랑실천본부, 라라어스, 봉82,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성남지역협의회 수정지구, 성남시 종원구청 사회복지과, 성남동성당, 성남 테크노과학고, 성남 동부 새마을금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시지역청소년센터, 슝리필스테이션, 성남시청, 서점결, 인보의집, 위례동행정복지센터, 오뚜기, 아모레퍼시픽, 중부적십자, 좋은축산, 자녀안심재단, 창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파파존스 피자, 트레이드앤그루비,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후원물품

탁구채, 청바지, 도시락, 돈까스, 한우, 서브웨이 샌드위치, 도넛, 삼겹살, 딸기, 대패삼겹살, 생필품, 고구마, 피자, 휴지, 과자, 풋살장갑, 햄버거, 손소독제, 빵, 속옷, 도서, 의류, 비누, 롤케이크, 간편식품, 신발, 코로나 자가키트, 쌀, 비데, 고기세트, 노트북, 찐빵, 꿀, 마스크, 치킨, 컵케이크, 담요, 중식지원, 케이크, 아이스크림, 삼계탕, 복숭아, 명절세트, 티트, 교복, 등뼈, 포도, 문화상품권, 토너, 핫팩, 이불, 치킨, 커피, 사과, 이불, 비타민, 축구 유니폼



봉사자님 소개(2022)

	기존봉사자	신규봉사자
학습봉사자	영어-홍장원, 최희진, 황태윤	영어-곽태윤, 수학-김경덕 국어-김태현
개인상담	홍장원	
차의과대학(협약) 상담, 미술치료		직업상담-김소원 미술치료-정해미, 이어진, 임다솜 상담-조주안, 공건동
식사봉사	구선정, 김혜미	류경희, 양지영, 김연숙, 김희정
프로그램지원	집단영화상담-홍장원 직업체험&만들기프로그램- 김호정, 김경선	
멘토링프로그램	한호순, 이미영, 박은영, 최희진	
집단교육프로그램	성교육(김현정)	
행정 및 활동 지원	김혜미	정민규, 한동수, 김재이
시설유지보수	이경규	

후원안내



자원봉사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의 재능나눔 및 공부를 지속하기 위한 학습지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 기타 행정보조 및 노력봉사를 해 주실 봉사자 선생님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물품후원

먹거리, 피복, 문구 등 각종 생필품들이 쉼터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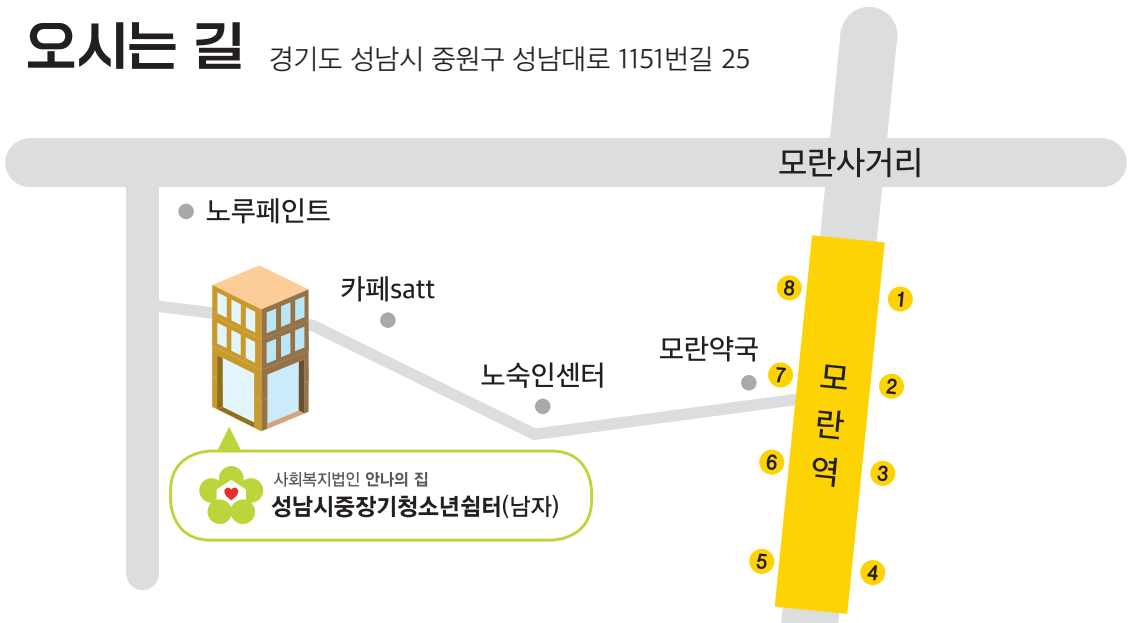
일반후원

쉼터를 위해 정성을 담아 보내주신 후원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청소년들에게 소중히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120-4514-21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오시는 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1번길 25



지하철 모란역 7번 출구 하차



버 스 모란역 6번 출구 하차

3-1, 17, 17-1, 31-2, 31-3, 32, 32-1, 50, 52, 57, 60, 119, 200, 240, 320, 382

모란역 7번 출구에서 300m 거리에 위치